

나주시 노안면 이장협의회, ‘남도의병 특별전’ 관람

남도의병 정신 기리며 지역 역사·문화 공유



노안면 이장협의회가 남도의병역사박물관에서 '남도 의병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노안면 이장협의회(회장 정병삼)는 지난 13일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을 방문해 '남도 의병 특별전'을 관람하고 지역의 역사와 남도의병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관람에는 박물관 전시 자료와 역사적 기록을 통해 남도 의병 활동과 국난의 위기 속에서도 나라와 고장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의병들의 발자취를 돌아봤다.

특히 이름 없이 헌신한 선조들의 희생과 연대 정신을 되새기며 오늘날 지역사회에서 서로 협력하고 이웃을 살피는 상생 실천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계기를 가졌다.

정병삼 노안면 이장협의회장은 “이번 남도의병특별전 관람을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며 “선조들이 보여준 나라사랑과 공동체 정신을 본받아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안면 이장협의회는 지역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며 주민 소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활동에 동참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인다.

이을러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서성택 기자

담양,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바자회 개최

담양군(군수 박종원)은 14일 담양읍 백진공원에서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및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담양군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서명원)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이웃사랑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쓴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은 지역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종연 기자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16일 개막

화순군은 '2026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맞아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먹깨비 앱에서 1만 5천 원 이상 주문하고 즉시 결제하면 5천 원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은 1인당 최대 2회까지 제공되며, 다른 할인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광덕문화광장에서 열리는 '화순군 소상공인 상생한마당'과 연계한 소비 촉진 행사도 마련된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가을철 축사 관리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 당부

큰 일교차 대비 축사 온·습도 관리 및 가축 질병 예방 철저



영광군청 전경 사진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가을철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낮아지고 일교차가 커짐에 따라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 유지를 위해 축산농가에 철저한 축사 환경관리와 가축 질병 예방을 당부했다.

가을철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 가축이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시기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 가축은 호흡기 질병 등에 취약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축사 내부의 적정 온·습도를 유지하고, 아침

저녁에는 찬바람이 가축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보온시설과 방풍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낮에는 적절한 환기를 통해 축사 내 습기와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분뇨와 오염된 깔짚을 적기에 제거해 쾌적한 사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겨울철 난방기 사용 증가에 대비해 노후 전기배선과 누전차단기, 보온 등 전기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축사 주변 가연성 물질을 정리하는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군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가축 재해 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등으로 가축이나 축사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범위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김진기 기자

풀숲, 논밭도 조심... 장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 발열, 두통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장성군이 야외 활동 빈도가 높아지는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쯤쯤가무시증이 있다.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며, 고열,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쯤쯤가무시증은 쯤쯤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며, 발열과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피)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SFTS와 쯤쯤가무시증은 예방백신이 없어 평소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옷, 장갑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활동 전에 미리 진드기 기피제를 뿌려 두는 것이 좋다.

풀밭에 앉을 때는 반드시 돛자리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전염시키는 작은소피참진드기 사진 /장성군 제공

를 사용하고, 풀 위에 옷을 벗어 놓거나 누우면 안 된다. 활동을 마치면 귀가 즉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해야 한다.

장성군보건소 관계자는 “평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 활동 이력을 알리고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 작업과 등산 등 야외 활동이 많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재섭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